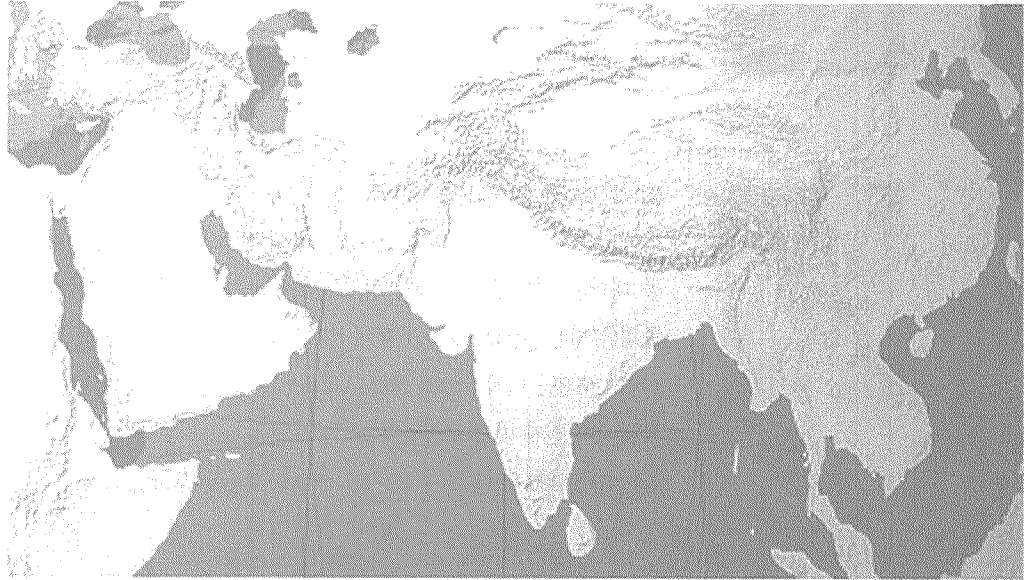


→→→ 중국의 급성장, 우리에게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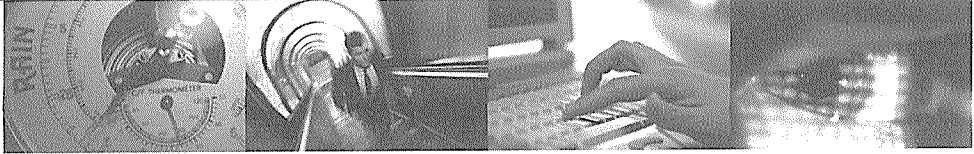


산업기술시험원 인증획득지원사업단 박 성 순 실장

六十甲子の 시작인 甲申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六十甲子は 10간(干)과 12지(支)를 결합하여 만든 60개의 간지(干支)를 말하며, 60년을 주기로 돌아 오며, 甲申은 60갑자의 첫 번째 간지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금의 우리나라 경제환경이 한치 앞도 내다 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 한중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 갑신년을 맞이하여 우리경제가 중국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해로 거듭 나갈 기원하면서 이 글을 쓰고자 합니다.



1. 중국과의 중요성

최근의 세계경제는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경기를 이끌던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장기간에 걸쳐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근래 몇 년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등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다 보니 중국의 동향이 세계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증대하여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작용하는 것을 반증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 경제가 감기든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국의 움직임 하나 하나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부터 정부주도로 4차례에 걸쳐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산업이 뿌리가 내리게 되었고, 민간 기업이 선진 기업들로부터 도입한 기술과 국산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 기업들과 경쟁함으로써 일부 산업(메모리 반도체, LCD, 휴대폰 등)의 경우 세계시장을 이끄는 강자로 성장하여 왔지만, 이제는 전통산업중 경쟁력이 한계에 부딪힌 대부분의 취약산업은 고임금 등 열악한 경영환경을 탈피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 진출로 산업공동화 가능성 우려가 팽배해 지는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듯이 우리나라에 있어 중국은 우리 경제와 문화의 흥망성쇠에 많은 관련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의 한·중 교역추이를 살펴 보면 중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20세기말 우리 경제에 불어 닥친 흑독한 IMF사태를 중국시장의 활성화와 해외투자 유치로 무사히 넘기게 되면서 21세기를 맞아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들뜬 기대를 갖게 되었으나, 통일, 남북협력, 개혁이라는 신기루에 매달려 이념논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이견 표출로 경제는 또 다시 침체국면을 맞아 또 다시 제 2의 IMF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한국전쟁의 여파 및 북한과의 체제경쟁 틈바구니에서 미국, 일본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했으나, 우리나라가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 개최로 양국간의 분위기가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민간 경제교류가 이루어 지다가 1992년의 한·중 수교이후에는 통상 및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 및 생산기지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아국 기업의 전진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는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어

중국의 급성장, 우리에게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우리에게는 중국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2. 대중국 무역 추이 및 시사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었던 미국(수출·입 비중이 모두 20%를 상회)에 비해 1/3 ~ 1/4수준이었던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94년도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의 6.6%, 수입은 전체의 5.6%에 불과하였지만, 2003. 11월 누계로는 수출(314.9억불)은 전체의 18.1%, 수입(196.9억불)은 전체의 12.2%를 차지할 정도로 급신장하여 총 무역액 규모는 511.8억불에 달하여 미국(533.6억불)에 근접하고 있고, 수출규모는 2003년(11월말) 들어 오히려 미국(307.6억불)을 앞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무역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더군다나, 무역수지 측면에서 보면 2003년(11월말)만 해도 중국으로 부터 118.0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99년(47.2억불)보다 2.5배로 커지는 등 급속히 확대되어 이미 미국(81.6억불)이나 EU(53.3억불)보다 무역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고, 당분간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 우리나라의 IMF의 주원인이었던 외환정책에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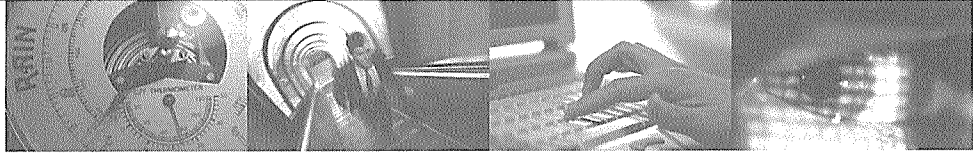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이 무역규모가 커지면 중국과의 다양한 무역마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무역마찰이 발생할 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 할 때 기업과 정부는 중국의 동향 및 대응책을 예의 주시하여 그 파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중국 년도별 무역 추이

(단위 : 억불)

구 분		1994	1996	1998	2000	2002	년 평균 증가율	2003.11	전년대비 증가율
전 체	수 출	936.8	1,283.0	1,323.1	1,722.7	1,624.7	7.1	1,744.1	18.3
	수 입	968.2	1,436.1	932.8	1,604.8	1,521.3	5.8	1,611.4	17.0
	총무역액	1,905.0	2,719.1	2,255.9	3,327.5	3,146.0	6.5	3,355.5	17.7
	무역수지	△ 31.4	△ 153.1	390.3	117.9	103.4	-	132.7	36.7
대 중 국	수 출	62.0	113.7	119.4	184.5	237.5	18.3	314.9	48.4
	수 입	54.6	85.3	64.8	128.0	174.0	15.6	196.9	25.1
	총무역액	116.6	199.0	184.2	312.5	411.5	17.1	511.8	7.9
	무역수지	7.4	28.4	54.6	56.5	63.5	30.8	118.0	115.3
중 국 비 중	수 출	6.6	8.9	9.0	10.7	14.6		18.1	
	수 입	5.6	5.9	7.0	8.0	11.4		12.2	
	총무역액	6.1	7.3	8.2	9.4	13.1		15.3	
	무역수지	-	-	14.0	48.0	61.4		88.9	

※ 산업자원부 통계자료 인용



참고로 주요국가별 무역비중을 보면 IMF시절인 1999년만 해도 미국의 비중은 20.6%, 일본은 15.2%, EU는 12.5% 수준이었던데 반해 중국은 8.6%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11월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16.0%, 일본은 14.3%, EU는 11.9%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15.0%에 달할 정도로 한·중 간의 무역규모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국과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전 체	미 국		중 국		일 본		E U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999	수 출	1,436.9	294.8	20.5	136.8	9.5	158.6	11.0	202.4	14.1
	수 입	1,197.5	249.2	20.8	88.7	7.4	241.4	20.2	126.3	10.5
	교 역 액	2,634.4	544.0	20.6	225.5	8.6	400.0	15.2	328.7	12.5
	무역수지	239.4	45.6		48.1		△82.8		76.1	
2000	수 출	1,722.7	376.1	21.8	184.5	10.7	204.6	11.9	234.2	13.6
	수 입	1,604.8	292.4	18.2	128.0	8.0	318.3	19.8	157.8	9.8
	교 역 액	3,327.5	668.5	20.1	312.5	9.4	522.9	15.7	392.0	11.8
	무역수지	117.9	83.7		56.5		△113.7		76.4	
2001	수 출	1,504.4	312.1	20.7	181.9	12.1	165.1	11.0	196.3	13.0
	수 입	1,411.0	223.8	15.9	133.0	9.4	266.3	18.9	149.2	10.6
	교 역 액	2,915.4	535.9	18.4	314.9	10.8	431.4	14.8	345.5	11.9
	무역수지	93.4	88.3		48.9		△101.2		47.1	
2002	수 출	1,624.7	327.8	20.2	237.5	14.6	151.4	9.3	216.9	13.4
	수 입	1,521.3	230.1	15.1	174.0	11.4	298.6	19.6	171.1	11.2
	교 역 액	3,146.0	557.9	17.7	411.5	13.1	450.0	14.3	388.0	12.3
	무역수지	103.4	97.7		63.5		△147.2		45.8	
2003.11	수 출	1,744.1	307.6	17.6	314.9	18.1	156.2	9.0	225.4	12.9
	수 입	1,611.4	226.0	14.0	196.9	12.2	326.4	20.3	172.0	10.7
	교 역 액	3,355.5	533.6	16.0	511.8	15.0	482.6	14.3	397.4	11.9
	무역수지	132.7	81.6		118.0		△170.2		83.4	

※ 산업자원부 통계자료 인용

이와 같이 대중국 무역규모가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중국이 달러화에 연계시킨 환율제도에 도 영향이 있겠지만,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도로 개방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해외 자본 및 공장을 유

중국의 급성장, 우리에게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치하여 선진국의 앞선 기술, 인력, 물류 유통 등이 중국체제에 정착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어 중국 서민경제의 실질구매력 향상으로 인한 고급 가전 및 통신제품의 수요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는 문화적 유사성에서 도움을 받은 바가 큼니다.

3. 제품군별 수출·입 동향 및 시사점

○ 제품군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수출에서는 전자·전기 제품 등 중화학제품이 주도하고, 수입에서는 그동안 주로 수입되던 경공업제품과 1차산품은 꾸준히 수입에 의존되고 있으나, 전자·전기 제품 등 중화학제품의 비중이 점차 높아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할 것입니다.

즉,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원가절감 또는 신기술제품 제품 등 신제품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품질 향상을 꾀하지 않고 그동안의 타성으로 버티다가는 우리 산업이 고사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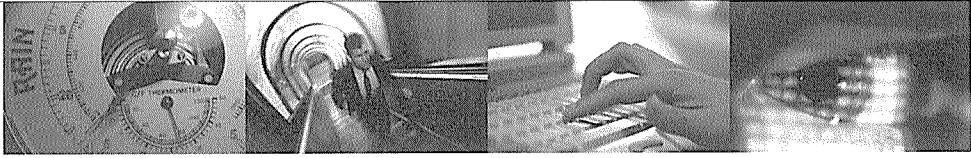
제품군별 대중국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수 출				수 입			
	2002년		2001년		2002년		2001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전체	23,754	100.0	31,488	100.0	17,400	100.0	19,689	100.0
중화학제품	19,479	82.0	27,288	86.7	9,077	52.2	11,030	56.0
- 전자·전기 제품	8,213	34.6	11,564	36.7	5,426	31.2	6,712	34.1
- 화공품	5,353	22.5	6,217	19.7	1,512	8.7	1,636	8.3
- 일반 기계	2,015	8.5	3,045	9.7	710	4.1	763	3.9
경공업제품	4,040	17.0	3,913	12.4	4,051	23.3	4,216	21.4
1차산품	235	1.0	288	9.1	4,272	24.5	4,443	22.6
- 농림수산물					2,406	13.8	2,501	12.7

※ 산업자원부 통계자료 인용

경공업제품의 수·출입 비중이 낮아 지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경쟁을 포기하고 초기에 중국에 진출한 경공업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중국에서 동남아 등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전자·전기 제품의 대중 수·출입비중이 점증되고 있는 것은 저가품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제품의 생산기지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서서히 이전되는데 따라 당분간은 수·출입규모가 점증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고기술제품과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한정된 제품(메모리 반도체, LCD,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한 전자·전기 제품 등 중화학제품의 경우 아직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듯이 보여 지지만, 중국의 첨단기술산업 진출 의지로 미뤄 볼 때 이와 같은 현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 정부는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경쟁에 직면하게 된 점을 인식 국가 주도로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유도하고, 전통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둘째, 중국 정부의 해외 원천기술 습득을 위한 투자 촉진책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여 국내 기업 및 선진국의 우수 기업들이 대중국 시장 선점 및 저임금을 겨냥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하기 시작한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전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화교상권이 갖고 있는 정보와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 가고 있다는 점은 중국이 안방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우리에게서 시장확대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빼앗아 국내시장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립기반을 흔들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산업에 미치는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은 천양지차가 되겠지만, 산업은 살아 있는 생물같아서 변화하는 환경을 준비하지 못하면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던 국제적인 거대기업도 무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미국, 유럽시장에서 겪었던이 일정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특히 무역수지가 일방적으로 흑자 확대로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많은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통상관계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우리와의 투자관계의 변화 추이도 살펴 봐야 할 것이므로 다음번에는 부족하나마 한·중 투자 동향추이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